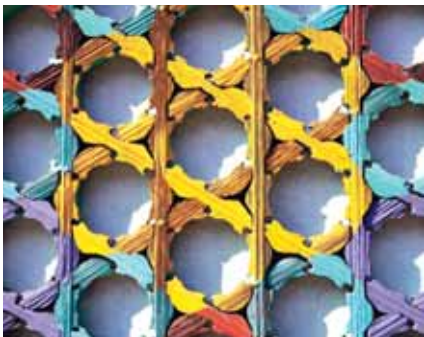


붉게 물든 불갑사... 단풍길 산책하면 몸도 마음도 힐링

영광 불갑사 관광지 사계절 관광지 자리매김

사시사철 색다른 아름다움에 한걸음 한걸음 사색과 힐링 여행
상사화·단풍 붉은 유혹...수변공원·산림박물관 등 볼거리 풍성



불갑사 대웅전을 장식한 화려한 꽃문살이 눈길을 끈다.



불갑사 전경

국내 최대 상사화 자생지인 불갑사 관광지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지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시사철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해 덕분에 연중 관광객의 발길과 함께 탄성이 끊이지 않는다.

영광군도 불갑사를 중심으로 불갑산 일대를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005년 불갑저수지에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수변공원을 조성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영광산림박물관을 개관해 불갑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영광군은 특히 불갑산 일대에 최소한의 인공시설만 배치하는 등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형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형 관광지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는 문화 중심으로 숲이 중심축을 이루는 자연 친화적 문화관광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면서 "영광만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산림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경제적 가치 창출을 물론 미래 세대에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시사철 다른 풍경...영광의 매력에 빠지다=영광 불갑산 내 불갑사 일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다.

불갑사는 범성포를 통해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

봄이면 불갑사 가는 길목을 화려한 벚꽃이 장식한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과 어우러진 산길 풍경은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봄을 지나 여름이 오는 길목에선 붉은 꽃잎 휘날리는 배롱나무꽃길을 감상할 수 있다. 단성이 절로 터져나



불갑사 관광지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사계절 관광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가을철 상사화와 단풍은 백미로 꼽힌다.

올 정도로 매력적인 풍경이다.

그래도 불갑사하면 가을철 불갑산 자락을 운통 붉게 물들이는 상사화와 단풍 풍경이 으뜸으로 꼽힌다.

불갑산은 식생이 풍부해 사시사철 아름다운 야생화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곳으로, 특히 국가표준식물목록에 등재된 상사화 속 식물 중 7월 중순부터 피어나는 멸종위기식물 2급 진노랑상사화, 붉노랑상사화가 자생하는 산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를 자랑하는 석산화(꽃무릇)는 매년 9월이면 불갑산 전체를 붉은 용단으로 갈아놓은 듯 붉게 물들이는 대장관을 연출한다.

우리말 이름으로 '꽃무릇'으로도 불리는 상사화(相思花)는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식물로, 꽃과 잎이 서로 달리 피고 지는 모습이 인간세계에서 서로 떨어져 사모하는 정인들과 같아 불여진 고유 이름이다. 한자어 뜻 그대로 서로를 향한 사무진 열정이 꽃말이다.

불갑산 자락은 겨울이 되면 꽃이후 푸른 푸른 푸른 상사화잎과 대비를 이루는 하얀 눈 풍경이 백미다.

영광군은 매년 상사화의 예뻐한 사연과 함께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축제를 열고 있으며, 전국에서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다.

그런데 진정한 상사화의 매력을 홀로 느끼고 싶다면 축제 이후에 방문해도 좋다는 게 영광군 관계자의 귀띐이다. 꽃이 막 필때 축제를 개최하는 덕분에 축제 후에도 꽃자태는 여전히 절정에 머물러 있어서다. 게다가 인적마저 달해 조용히 사색하며 꽃들과 마주

하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다.

◇불갑산 그리고 불갑사=불갑산(佛甲山) 높이는 516m로 높지는 않다. 이름에서 풍기는 것처럼 불교적 색채가 짙은 산이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백제에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 불교의 도래지란 의미의 불(佛)자와 육갑(六甲)의 천간(天干)인 갑(甲)자를 따 불갑사라 했고, 이 절의 영험한 효험이 불갑산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중국에서 마라난타가 바다를 건너 맨 처음 당도한 곳이 범성포이고, 그곳에서 가장 가깝고 신령스런 산인 모악산(현 불갑산)에 절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런 불교적인 유래 때문인지 크지 않은 산의 규모임에도 숨어있는 암자가 7~8개나 될 정도다. 원래 이 산을 모악산이라 불렀던 것은 산세의 수려함과 신령스러움이 마치 산들의 어머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 한다.

불갑사 안내편에는 '불갑산(구 모악산)'이라는 표기돼 있다.

불갑사를 품고 있는 불갑산은 수림이 울창하고, 바위와 돌이 많아 꽤 거친 편이다. 특히 연꽃 열매를 달았다는 불갑산의 정상 연실봉(蓮實峰)은 커다란 암괴로 이뤄졌다. 이곳은 넓은 바위 지대로 조망이 뛰어나다. 맑은 날 동쪽으로 무등산을 볼 수 있고, 해질녘에는 서해 칠산 앞바다의 낙조 또한 일품이다. 불철 붉은 하늘과 돌, 사람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선경을 보는 것 같다.

불갑사 내 보물 제83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데 칸의 세쌍 문을 연화문과 국화문으로 장식했고 좌우칸에는 소슬 빗살무늬로 처리해 분위기가 매우 화사하다. 불갑사 안에는 만세루, 명부전, 일광당, 그리고 요사채가 있고, 절 뒤에는 천연기념물 제112호로 지정된 참나무 군락도 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산림박물관=불갑산에 왔다면 불갑저수지 수변공원과 영광산림박물관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영광군은 지난 2015년 9월 8일 불갑면 불갑사 관광지 내에 '영광산림박물관'을 개관했다. 영광산림박물관은 42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990㎡,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됐다.

특히 '한식 그늘림 기와지붕양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산림박물관은 산림사료의 보존·전시·교육 및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숲을 주제로 한 산림문화 학습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4개의 전시관은 숲의 고유한 역할과 영광지역 산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의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갑사를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산림문화 교육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머물고 싶은 자연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영광군은 수변공원을 군민 휴식과 여가산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1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주변에 인공폭포, 전망대, 주차장, 산책로, 공원을 배치했다.

/영광=박형진기자 phj@kwangju.co.kr

SBS 아나운서 정미선

KBS 아나운서 김민정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하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초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